

## 삼대록계 소설에 나타난 남성 인물의 의치증 연구\*

- <소현성록(蘇賢聖錄)> 연작의 '소운명'을 중심으로

공혜란\*\*

<차 례>

1. 서언
2. 소운명의 의치증 증세
3. 의치증의 원인
  - 1) 남성 자신의 문제: 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소운명
  - 2) 엄부(嚴父) 소현성의 교육 문제: 편집증 환자 슈레버의 아버지와 비교
4. 17~18세기 삼대록계 소설의 의치증 양상과 남성 인물군
  - 1) 17~18세기 삼대록계 소설의 의치증 양상
  - 2) 의치증과 남성 인물군
5. 결론

### <국문초록>

삼대록계 소설은 그 방대한 양으로 인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중 아내가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으나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는 남편들이 17~18세기 삼대록계 소설에서 종종 구현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초기 삼대록계 소설인 17세기 <소현성록(蘇賢聖錄)> 연작에서 소운명이 아내 이씨에게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을 현대의 병리적 현상인 '의치증'으로 규정하여 그 증상과 원인을 살피고, 이러한 남성 인물 유형이 후대 18세기 삼대록계 소설의 남성 인물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현대 정신의학의 개념과 프로이트의 연구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18세기 삼대록계 소설에서는 18세기 초의 <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 18세기의 <현몽쌍룡기(現夢雙龍記)>, 18~19세기 초반의 <조씨삼대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고전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했다.  
또한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20S1A5B5A17091002)

\*\* 한성대학교 강사

록(曹氏三代錄)을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17~18세기 삼대록계 소설에서 의치증 증세를 보이는 남성 인물들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논의를 통해 국문장편소설 속 남성 인물들의 다기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려 한다.

□ <소현성록(蘇賢聖錄)> 연작, 소운명, 의치증, 삼대록계 소설, 병리적 현상

## 1. 서언

이 글에서는 17세기 <소현성록(蘇賢聖錄)> 연작의 남성 인물 소운명이 보인 의치증 증상과 그 원인을 병리적 관점에서 살피며, 이를 토대로 17~18세기 삼대록계 소설에서 의치증을 나타내는 남성 인물군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삼대록계 소설에서는 많은 남성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논의는 부부 관계에 있는 남성 인물(남편)이 여성 인물(아내)에게 왜 의치증을 보이는지, 의치증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한다. 삼대록계 소설에서는 아내의 정절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작품에서 부부 갈등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소운명과 그의 둘째 부인인 이씨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기 위해, 소운명의 셋째 부인 이자 악인인 정씨가 이씨에게 간부가 있는 듯한 사건을 꾸민다. 이에 소운명은 둘째 부인 이씨를 오해하며 괴롭힌다.

또한 아내의 정절 문제는 신소설 및 현대소설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최찬식의 <안(鴈)의 성(聲)>에서는 김상현-박정애 부부 사이를 두고, 김상현을 짝사랑하는 이웃집 여학생 정봉자가 박정애를 내쫓기 위해 박정애에게 간부가 있다는 거짓 증거를 꾸민다. 이때 김상현의 어머니는 며느리 박정애에게 간부가 있다며 박정애의 정절을 의심하지만, 김상현은 어머니에게 아내 박정애의 성격을 보면 그럴 리가 없다며 박정애를 두둔한다. 한편 홍혜원은 <파도>의 남주인공 명수가 아내와 자신의 친구인 춘식의 사이를

까닭 없이 의심하고 아내를 때리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인다고 하였다.<sup>1)</sup> 즉 소설에서 아내의 정절 문제는 종종 나타난다.

먼저 삼대륙계 소설의 의처증 증상을 살필 때,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sup>2)</sup> 첫째, 작품의 후반부에서 소현성의 3자 소운성과 더불어 8자 소운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운명의 의처증 증상에 대하여 대부분 주목하지 않았다. 둘째, 17세기 〈소현성록〉 연작은 초기 삼대륙계 소설인데, 소운명을 비롯하여 작품에 구현된 인물형이 분명 18세기 삼대륙계 소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의처증 증상을 보이는 남성 인물들이 18세기에도 등장하므로 이를 17세기의 소운명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소현성록〉 연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정절을 의심받는 경우는 소현성의 둘째 부인 석씨와 소운명의 둘째 부인 이씨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현성은 소운명과는 달리 정황상 의처증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현성의 셋째 부인 여씨는 쟁충으로 인해 둘째 부인 석씨를 없애고자 하여, 개용단을 먹고 둘째 부인 석씨로 변신한 후, 남편인 소현성의 면전에서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설생의 자식이라고 말한다.<sup>3)</sup> 이를 소현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석씨가 본인의 음란함을 발화하며 먼저 부부간의 신뢰를 깬 것이다. 이것을 의처증 증상으로 보기에선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작품 내에서는 소운명으로 한정해서 의처증 증세와 그 원인을 고찰한다.

기존의 ①소운명 및 ②여타 국문장편소설의 의처증에 대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①박영희는 ‘소운명과 임씨-이씨-정씨’간에는 혼사 장애담과 처 처 갈등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였다.<sup>4)</sup> 문용식은 〈소현성록〉 연작의 3세대인

1) 홍혜원, 「일제 말기 한설야 소설과 신경증」, 『현대문학이론연구』 5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319~338쪽.

2) 여기서는 이대본 15권 15책을 대상으로 논의하겠다.

3) 〈소현성록〉 연작 권지삼, 17~18면.

소운명을 색탐(色貪)으로 인해 2세대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자 애정 의 지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는 인물로 보았다.<sup>5)</sup> 정선희는 소운명이 소가의 뛰어난 남성 인물들에 비해서는 성격이 편협하고 색탐하는 범인형 남성 인물이라고 하였다.<sup>6)</sup> 또한 정선희는 폭력의 관점에서 소운명이 첫째 부인 임씨와 셋째 부인 정씨에게는 ‘오랫동안 버려두기’를 했고, 둘째 부인 이씨에게는 ‘일방적으로 구애하기’를 했으며, 그 다음은 이씨의 정절을 의심해 ‘오해하여 심하게 내치기’를 한다고 분석하였다.<sup>7)</sup> 공혜란도 소운명을 폭력적인 남편이라고 하였는데 첫째 부인 임씨가 박색이라는 이유로 비가시적인 폭력인 냉담을 행했다고 보았다.<sup>8)</sup> 고은임은 소운명이 남북한 여성인 이씨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동성애적 장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9)</sup> 이후 고은임은 소운명이 셋째 부인 정씨의 말만 듣고 이씨를 괴롭혔다고 하며, 이씨가 죽은 뒤 이씨의 아들인 소세필이 정씨의 사주를 받고 이씨의 간부인 척했던 성영을 죽이는 것을 복수 서사로 살폈다.<sup>10)</sup> 강우규·김바로는 소운명이 여타 국문장편소설의 남주인공들과는 달리 슬픔의 지속적인 상승과 유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sup>11)</sup> 즉 범인(凡人)인 소운명이 색탐(色

4)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3, 1~258쪽.

5)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과 갈등의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3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99~118쪽.

6)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쪽.

7)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53~487쪽.

8) 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대 박사논문, 2018, 66~68쪽.

9)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문화사학회, 2018, 91~121쪽.

10)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권력자의 복수(復讐)-〈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8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37~71쪽.

11) 강우규·김바로, 「〈소현성록〉 연작에 나타난 감정의 출현 빈도와 의미-컴퓨터를 활용

貪)으로 인해 박색인 첫째 부인 임씨에게 불만을 가졌고, 그 뒤 미색이 출중한 둘째 부인 이씨를 얻었으나 이씨에게 간부가 있다는 오해를 하였다는 것 등은 지적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운명의 의처증 증세와 그 원인을 병리적 차원에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②그 외에 국문장편소설의 남성 의처증 증상은 주로 18세기 <유씨삼대륙>의 유세필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장시광은 <유씨삼대륙>에서 남편 유세필이 아내 박씨의 정절을 의심한다고 하였는데 그가 가부장으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내를 고난에 빠뜨린다고 보았다.<sup>12)</sup> 임치균은 <사그라진 신부 원귀>, <유씨삼대륙>, <이김양성기>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정숙함을 의심하는데 이 작품들이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피치료자인 남편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sup>13)</sup> 그밖에 공혜란은 18세기 <유씨삼대륙>의 유세필-박씨, <현몽쌍룡기>의 조성-양씨, <조씨삼대륙>의 조유현-정씨 부부 사이에서 의처증에 따른 냉담과 폭언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14)</sup> 즉 18세기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남성 의처증은 산발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의처증을 보이는 남성 인물들을 본격적으로 유형화하지는 않았다.

앞으로의 논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삼대륙계 소설인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명을 의처증 증세로 분석하며 그 원인을 병리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때 소운명의 의처증 및 그 원인을 병리적인 차원에서 밝히기 위해, 현대 정신의학의 개념과 프로이트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18세기 삼대륙계 소설들 중 18세기 초의 <유씨삼대륙>(劉氏三代

한 통계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온지논총』 56, 온지학회, 2018, 101~128쪽.

12) 장시광, 「<유씨삼대륙>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23~269쪽.

13) 임치균,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방식 고찰, 『문학치료연구』 22,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7~130쪽.

14) 공혜란(2018), 앞의 논문, 70~72쪽.

錄)), 18세기의 <현몽쌍룡기(現夢雙龍記)>, 18~19세기 초반의 <조씨삼대록(曹氏三代錄)>을 선정하여, 17~18세기 삼대록계 소설의 의처증 양상 및 남성 인물군을 살핀다. 이를 통해 국문장편소설 속 남성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작게나마 밝혀 보고자 한다.

## 2. 소운명의 의처증 증세

소운명은 둘째 부인 이씨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간부가 있다고 여기는데, 이를 현대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았을 때 의처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서 의처증은 망상(妄想) 장애의 일종이다. 정신의학에 따르면 “대부분 망상은 단순하지만 괴이하지 않으며 인격 기능은 유지된 채 망상 내용에 적절한 감정을 동반한다”라고 본다.<sup>15)</sup> 사고 내용이 유형에 따라 피해적, 질투적, 색정적, 신체적, 과대적, 혼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질투형(jealous type)은 오셀로 증후군(Othello syndrome), 결혼 편집증(conjugal paranoia)이라고 하는데 의처증(疑妻症), 의부증(疑夫症)이 여기에 속한다. 질투망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를 믿을 수 없다는 망상을 말한다. 사소한 증거를 가지고 망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가상의 부정(不貞)에 대해 점차적으로 밝혀내려고 상대방을 압박하며 심한 경우 배우자를 폭행하기도 한다.<sup>16)</sup>

여기서는 우선 서술자가 소운명이라는 남성 캐릭터를 그릴 때 의도적으로 의처증 증세를 삽입한 것인지를 살피겠다. 이를 위해 잠시 정절을 의심 받는 둘째 부인 이씨를 보겠다. 이씨(이옥주)는 재상 이원기의 딸로 사족의 여성이었으나 일찍 부모님이 기세한 뒤 집안에 도착까지 들자 할 수 없이

15) 민성길 외,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2006, 300쪽.

16) 민성길 외(2006), 위의 책, 302~303쪽.

남복을 하고 시비 춘행과 함께 떠돌아 다닌다. 원래 소운명은 첫째 부인 이씨를 박색이어서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유리하던 이씨를 만나게 된다. 소운명은 이씨를 소부에 데리고 온 후 그녀가 여자임을 알게 되고 외모가 뛰어난 이씨에게 과도한 애정을 쏟는다.

이씨는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 소운명과 혼인 후 그의 둘째 부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정절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굳이 소부 구성원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그 방편으로 소운명과 혼인한 지 십여 일이 지났지만 운우지정을 전혀 나누지 않는다.<sup>17)</sup> 시어머니 화씨는 이씨의 앵혈을 보고 기뻐하며 소운명의 서모인 이파와 석파도 이러한 이씨를 칭찬한다. 소현성의 둘째 부인 석씨 또한 화씨가 이씨의 앵혈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웃는다. 나중에는 소부의 남성들인 소현성과 소운성까지 알게 된다.<sup>18)</sup>

그렇다면 서술자가 왜 이러한 장면을 넣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씨가 혼인 전 훼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편인 소운명과 독자만 알아도 될 것을 구태여 그녀는 소부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 장면은 후에 소운명이 이씨를 의심할 때 이씨의 편을 드는 소부 구성원들이 평상시 그녀의 됃됨이가 어떠했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로 보아 이씨에게는 소운명에게 의처증을 유발할 혐의가 없어진 셈이다.

그러나 소운명은 결국 이씨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인다. 소운명의 의처증 증상을 현대 정신의학으로 살펴보자. 현대에서는 남편이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배우자를 의심하고 괴롭히면 의처증이라고 본다. 작품에서는 소운명의 애정이 둘째 부인 이씨에게만 향하자 셋째 부인 정씨가 소부의 가객인 성영에게 뇌물을 써서 그가 이씨의 간부인 것처럼 일을 꾸민다. 또한 정씨의 시주를 받은 이씨의 시녀들이 이씨와 성영이 통간을 했으며 일부러 소운명에게 들리도록 대화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씨에 대한 애정이

17) 박영희(1993), 앞의 논문, 116쪽; 정선희(2005), 앞의 논문, 57쪽.

18) <소현성록> 연작 권지십, 75~77면, 93~94면.

들어들기는 했지만 소운명은 이씨의 처소에 들렀다.

그런데 그 후 성영이 이씨의 필적으로 쓰인 두 통의 편지를 소운명에게 보이자 소운명은 이씨에게 과도한 분노를 표출한다. 소운명은 이씨가 어떠한 여성이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족을 떨며 칼을 빼서 난간을 두드리는 등 화를 낸다.<sup>19)</sup> 반면 소운명의 형 소운의, 소운명의 첫째 부인 임씨, 형수인 형씨 등은 이씨의 평소 행실을 들며, 이씨가 그럴 리 없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소운명은 이씨를 가두리는 자신의 어머니 화씨의 명령에 즐거워하며 이씨를 후원에 감금한다. 더군다나 이씨가 후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을 때도 그 아들을 죽이겠다며 칼을 휘두른다. 의처증 증세가 심해지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소운명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씨에 대한 모해는 소운명의 셋째 부인 정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처첩 갈등이나 처처 갈등 시 악한 여성이 선한 여성의 정절을 문제 삼아 집안에서 축출하려는 장면은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악한 여성들의 경우 마지막에는 가문에서 제거되는데 정씨도 나중에는 소부에서 쫓겨난다. 그런데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이씨의 떠돌이 생활과 굳센 정절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의 원인이 소운명에게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한다.<sup>20)</sup> 즉 소운명은 자신이 가진 정보만을 가지고 배우자를 의심하는 질투 망상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소운명의 경우처럼 간부가 쓴 듯한 편지를 남편이 보아도, 상황을 잘 인지하는 남편은 의처증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같은 삼대록계 소설인 <조씨삼대록(曹氏三代錄)>에서는 조명천-혜선공주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 조명천을 일방적으로 좋

19) <소현성록> 연작 권지십일, 60면.

20) 정선희(2005), 앞의 논문, 59쪽; 고은임(2020), 앞의 논문, 42쪽. 정선희와 고은임은 정씨가 꾸민 모해 사건을 두고 소운명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서술자가 이씨의 정절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과 소운명의 의처증 증세를 교차로 기술한 것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아하는 여성 인물 화요는 혜선공주의 간부가 쓴 듯한 편지를 꾸며 조명천이 보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조명천은 혜선공주의 정절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편지를 전해준 서동을 크게 꾸짖는다. 이렇듯 아내들의 정절을 의심할만한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도 남편들이 제각기 반응하는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보통 의처증을 ‘오셀로 증후군(Othello syndrome)’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서 기인했다. 남편 오셀로는 자신에게 거짓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이아고의 말과 아내 데스테모나의 손수건이 다른 남성에게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아내를 살해한다. 즉 <오셀로>와 <소현성록> 연작 모두 제3자들인 이아고와 셋째 부인 정씨가 일을 꾸몄다. 이 제3자들은 남편들에게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 남편들이 아내들의 정절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의처증이 발현될 때 이는 아내나 제3자의 탓이 아니라 아주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 오해하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셀로>에서도 제3자인 이아고 보다는 남편 오셀로의 문제로, 오셀로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내를 오해했다고 여긴다.<sup>21)</sup>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소운명을 꾸짖는 아버지 소현성의 발언에서도 소운명의 정황 파악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즈유를 글을 넘어 네의를 알리니 (중략) 오히려 전일 결식호모로써 슈괴함을 삼아 비홍을 완전히 흐물 히 밧고드록 하니 우리 모양 절녀의 부인이라 흐고 네 또한 공경호고 그 너모 고집함을 도로혀 민망하여 흐던디라(이하 생략)<sup>22)</sup>

소현성은 이씨가 소부에서 ‘절녀의 부인’이며, 이를 의심하는 소운명이

21) 전현태, 『오셀로와 데스테모나, 그들은 정말 사랑했을까』, 좋은책 만들기, 2010, 220~224쪽. 전현태는 원래 오셀로가 열등감이 있었던 인물이기에 아내를 의심했다고 보았다.

22) <소현성록> 연작 권지십이, 29면.

잘못했다고 지적한다. 즉 소운명이 이씨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별것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었으나 소운명 본인이 망상장애의 일종인 의치증을 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운명의 의치증은 이씨의 앵혈 보존 사건과 교차되는 등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운명은 상황 인지를 잘못하여 이씨의 정절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이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질투형 망상장애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울러 현대 정신의학에서 의치증과 의부증은 그 원인이 증상을 보이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여기는데, 〈소현성록〉 연작에서도 의치증의 원인이 이씨의 정절을 모해한 셋째 부인 정씨보다 결과적으로는 소운명에게 한층 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3. 의치증의 원인

#### 1) 남성 자신의 문제: 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소운명

작품에서는 소운명의 의치증 증세를 서술할 때 소운명 자신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소운명이 처음부터 ‘병리적(病理的) 인물’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가문에서 정상적인 남성 인물이었는지에 혼인 후 여러 병리적 현상 중 하위 항목의 하나인 의치증을 나타낸 것인지 살펴겠다.

소운명은 아버지 소현성과 배다른 형인 소운성에 비해 출생과 관련하여 신이한 일은 없지만 외모가 준수하고 문재(文才)가 훌륭하여 사람들이 ‘화부인의 복’이라며 칭찬하는 인물이다. 즉 소현성-화씨 사이의 아들들 중 장자 소운경 다음으로 뛰어난 셈이다.<sup>23)</sup> 서술자는 소가 구성원들이 소운명

23) “화설 소승상의 팔각 운명은 화부인의 소심이라 하늘이 품슈한 때 경작옥골이오 슈구 금심이라 현아흔 풍지와 충준흔 거되 족히 반하의 고으물 더러이 너기고 송위의 물그를 나막라 표” 히 풍전의 옥썬오 교” 히 운니 신선이라 또한 문장이 싸혀나 즈건의

을 좋아하지만 한편 그가 가볍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기술한다.

소운명은 혼인 전 가문 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운명에게 성격적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운명은 첫째 부인 임씨와의 혼인 후 가문에서 문제시되는 인물로 서서히 전환된다.

각설 운명이 몸이 유성으로 도식의 걸린 일이 업소디라 안호로 금슬지락을  
 굶고 밧그로 창녀를 모아 우회로 쇼견호매 일노조차 방탕함미 극호더니<sup>24)</sup>

첫째 부인 임씨의 외모가 지극히 추하기에 소운명은 부부 관계에 별다른 마음을 두지 않으며 창녀를 모아 즐긴다. 즉 소운명에게 원래 있었던 성격적 결함 중 ‘색탐(色貪)’은 있지 않았는데 혼인 후 여색을 원하는 남성 인물로 바뀐 것이다.<sup>25)</sup>

그래서 소가 사람들 중 일부는 소운명의 처지에 대해 공감한다. 예를 들어, 소운명의 형들인 소운성과 소운경이 그러하다.<sup>26)</sup> 병이 난 소운명을 간호하는 임씨의 몰골이 너무 추악한 데 비해 이불 속에 누워있는 소운명이

---

칠보시를 묘시호고 태빅의 오십 구슈를 압두호는디라 일개 크게 인경호디 다만 성이  
 사름되오미 문인 지즈의 경도호 품이 잇고 성정이 밧는 불 그터며 먹음이 조비오나  
 쏘한 청야낭정호디 관후호 위의 운성의게 밧디 못호고 인명호기 운경만 못호나 마룻  
 풍도 문지는 고틱호디라 인 "이 다 칭호호디 화부인 복이라 호더니" <소현성록> 연  
 작 권지구, 85면.

24) <소현성록> 연작 권지구, 95~96면.

25) 문용식(1997), 앞의 논문, 99~118쪽; 정선희(2005), 앞의 논문, 37~68쪽. 문용식과 정선희는 소운명이 색을 탐하는 인물이며 못생긴 아내 임씨로 인해 결핍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소운명이 색탐하는 인물로 바뀌는 것을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살펴졌다.

26) 공혜란(2018), 앞의 논문, 67~68쪽. 공혜란은 소운명이 임씨가 박색이므로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지만 소운명과 임씨의 외모 대비 서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론 중에서도 외모가 빛나는 것을 두고, 소운성과 소운경은 속으로 소운명과 임씨의 행색을 비교한다. 이들은 재취를 하고 싶어하는 소운명의 마음을 잠시나마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모 비교 서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임씨의 박색이 어느 정도이길래 소운명의 형제들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혼인 당시 임씨를 묘사한 장면을 보자. 그녀는 얼굴이 검고 키가 작은 것 등의 박색을 넘어 얼굴에 큰 흑이 세 개나 좌우로 있다. 즉 기형에 가까운 모습인 것이다.<sup>27)</sup> 소가 사람들은 그 흉측함에 놀랐는데 당사자인 소운명은 혼이 나갔고 소운명의 어머니 화씨도 실성하며 울 정도였다. 단순히 외모가 못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박씨전〉의 박씨도<sup>28)</sup>, 〈유씨삼대록〉의 순씨도 박색이다.<sup>29)</sup> 그렇지만 이들의 외모는 얼굴과 몸의 형상이 추한 정도이지 〈소현성록〉 연작의 임씨처럼 흑이 좌우로 달린 등 기형은 아니었다.

그리고 〈박씨전〉에서 박씨의 남편인 이시백이나 〈유씨삼대록〉에서 순씨의 남편인 유세필은 작품에서 소운명처럼 그 외모가 뛰어난 나머지 못생긴 아내와 비교 서술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유씨삼대록〉에서 순씨가 키가 팔 척이라 남편인 유세필보다 크다는 설명은 나오지만 유세필의 외양

27) “늦치 누르고 거므며 키 2장 적고 허리 퍼디며 얹고 미사 형용이 고이썸 아니라 늦치 큰 흑이 세히나 좌우로 드리위시니” 〈소현성록〉 연작 권지규, 87면.

28) “신부 무릅씨를 벗고 안질세, 그 용모를 보니 형용 흉측하여 보기를 염네론지라 열기는 고석 갖고 불근 중에 입과 코와 한테 닳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갖고 치볼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주먹을 너허도 오히려 녀크허며 이마는 피독이 이마 갖고 머리털은 쓰르고 심히 부흐니 그 형용이 츠마 보지 못헐네라” 고대본 〈박씨전〉, 20~21면.

29) “신뵈 키 2장 커 거의 팔척이나 하니 흑스도곤 비히 크며 허리 크고 엇게 배 부트며 궁둥이 추혀붓고 목이 움츠며 등이 넓고 솔빛치 부회고 듯거오며 눈이 둥글고 눈섭이 성기며 나매 내밀고 입이 헤여지며 코히 주저안자 들니 업스며 말을 시작흐 즉 우습이 몬져 나오 동서로 고면허며 다리를 드디지며 고개를 그덕여 귀운을 스스로 이기디 못하느니라” 〈유씨삼대록〉 권지육, 68~69면.

이 특출나다고는 서술하지 않는다. 즉 <소현성록> 연작에서 유독 기형적인 아내의 외모와 미남자인 남편의 외모를 의도적으로 교차 기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술자는 독자들에게 소운명이 소부 밖에서 이씨와 인연을 맺는 것을 자연스럽게 납득시킨다.

그러나 아버지 소현성이 소운명의 첫째 부인 임씨를 귀하게 여기며 소운명에게 재취를 허락할 기미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임씨 또한 소운명이 데리고 온 창기들이 자신을 비웃자 매섭게 징계하며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다진다. 즉 소운명은 아버지 소현성의 기세에 눌려 재취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첫째 부인 임씨와 화락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정상적인 성적 만족이 좌절될 때 인간이 노이로제에 걸린다고 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성적인 욕구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분출된다고 하였다.<sup>30)</sup> 그러므로 소운명은 자신의 성적 욕구가 이제 소부 안에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바깥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운명의 친어머니 화씨는 잠시나마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시어머니 양 부인이나 남편 소현성 등 소부에 표출하나 소운명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다른 소현성의 자녀들은 소운명과는 달리, 소부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소운성은 석과에게 앵혈을 찍혔을 때 굳이 소부 안에 있는 석과의 질녀 소영을 겁탈함으로써 그 분풀이를 한다. 이에 비해 소운명은 자신의 성적 불만을 창기들을 들이는 것으로 소부 내에서 잠시 표출해도 바로 아버지 소현성과 아내 임씨에 의해 제지당한다.

그러므로 소운명은 셋째 형 소운성처럼 신이한 능력을 가진 아들이 되어 가문을 이끌던지, 아니면 다른 아들들처럼 특별한 사건을 만들지 않으며 무던하게 소부에 적응했어야만 했다. 아버지 소현성이 소운명의 첫째 부인

30) Sigmund Freud,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 우리글 발전소 옮김, 『정신분석 입문』, 오늘의 책, 2016, 397~398쪽.

임씨의 기형적인 외모를 보아도 놀라지 않고 탄복하듯이, 소운명도 그러저럭 타협하며 부부 생활을 해야 했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소운명을 통해 영웅성 및 신성성이 제거된, 단지 적당한 문재(文才)를 가진 보통의 남성 인물이 소부에서 어떻게 병리적 인간으로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

즉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소운명은 혼인 후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며, 본인이 원하던 이씨와 합일하지만 병리적 현상 중 하나인 의치증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운명은 혼인 후 ‘병리적인 인물’이 된다. 그런데 소부에서는 그의 성격을 병리적인 남성 인물로 확정하지 않고, 단지 영웅적인 중심 남성 인물형이 아닌,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만 둔다. 그렇다면 왜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만 그리려고 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먼저 ‘개별화된 남성 인물’에 대해 살피겠다. <소현성록> 연작을 비롯한 삼대록계 소설은 가문 창달이라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서사를 진행시킨다. 기실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가문의 중심 인물로 영웅성을 지닌 인물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운명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가문의 창달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남성 인물형이 아닌 것이다.<sup>31)</sup> 그런데 삼대록계 소설에서는 이러한 남성 인물들이 서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즉 ①거대한 가문의 자장 안에 존재하며, ②특정한 서사를 만들어 내어 작품에서 분량을 차지하지만, ③이들의 성격은 영웅성을 갖춘 중심 남성 인물군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삼대록계 소설에서 ①②③을 모두 갖춘 남성 인물군을 여기서는 ‘개별화된 남성 인물’이라고 지칭하겠다.

이렇게 보자면 소운명이 병리적인 인간이면서 개별화된 남성 인물이 될

31) 정선희(2005), 앞의 논문, 59쪽. 정선희는 소운명이 ‘보통의 남성’과 비슷하다며 흥미를 주고 서사에 변화를 주기 위해 창조된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는 의치증에 초점을 두어, 작자가 소운명을 굳이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만 남기려고 했는지, 왜 병리적 인간으로 두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소부에서 병리적인 인물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소부 내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게 된다. 그런데 〈소현성록〉 연작은 소부의 창달에 중점을 두었기에 소운명이 병리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순순히 허용하지 않는다. 작품에서는 소운명을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만 만들기 위해 그가 혼인 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색탐(色貪)’한다는 이미지를 계속 덧씌운다. 소운명의 스토리는 셋째 부인 정씨가 악행으로 축출된 뒤에 전생의 인연으로 4명의 아내들을 더 얻는 것으로 끝맺는다.

그렇지만 소운명은 혼인 후 그 기저에 병리적인 성격이 생겼으므로 이들과의 완전한 화합이 불가능하다. 소운명이 병리적 인간이었다는 흔적은 둘째 부인인 이씨가 죽은 후에도 희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이씨가 단명 한 뒤, 소운명이 만약 기문 안에서 나머지 아내들과의 화합을 통해 그 상태가 충분히 행복했다면, 굳이 셋째 부인 정씨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을 리가 없다.

이씨 사후 이씨의 아들인 소세필은 태수가 되어 뜻하지 않게 이씨의 간부인 척했던 성영을 만나 죽인다. 이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복수이다.<sup>32)</sup> 그런데 소운명은 더 나아가 아들 소세필에게 세월이 흘러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정씨를 죽이자고 말한다.<sup>33)</sup> 소운명은 소세필에게 자신이 항상 정씨를 찾아 없애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소세필은 아버지 소운명에게 이미 20년 전 일이라며 정씨를 죽이지 않는다. 서술자는 소운명을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만 남기려고 하기에 소운명이 정씨를 두고 발화하는 장면은 에피소드처럼 매우 짧게 지나간다.

다른 삼대륙계 소설에서 악행을 했던 아내를 바로 칼로 죽이는 남편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sup>34)</sup> 소운명은 이에 비해 자신이 실현할 수 없는

32) 고은임(2020), 앞의 논문, 41쪽. 고은임은 소세필이 태수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성영을 처리했다고 하였다.

33) 〈소현성록〉 연작 권지십오, 30~31면.

복수심만 오래 간직한 남성 인물인 것이다. 또한 아들 소세필이 정씨를 죽이자는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자 이내 수궁한다. 긴 시간 동안 복수심을 품었다면 본인이 정씨를 처단해야 했지만 소운명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 상태가 오히려 소운명의 병리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소운명은 기형에 가까운 첫째 부인 임씨와의 혼인을 통해 혼인 전에는 없었던 색탐(色貪)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소운명은 혼인 후 성적 욕구가 해소되지 못해 병리적 인간으로 변화했으며, 마침내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병리적 현상 중 하나인 의처증 증세를 발현했다. 그렇지만 서술자는 그의 위치를 병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영웅성을 갖춘 중심 남성 인물이 아닌,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만 설정했다. 이와 같은 서술자의 의도는 작품의 말미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술자는 마지막으로 소운명의 죽음을 언급할 때 소현성의 아들들 중 자손이 가장 많았음을 강조한다. 이는 병리적인 인물이자 개별화된 남성 인물, 병리적인 인물이 아닌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만 전환하여 자손 번성의 예시로 둔갑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엄부(嚴父) 소현성의 교육 문제

### : 편집증 환자 슈레버의 아버지와 비교

심리적으로 마음을 붙일 때가 없었던 소운명은 유람 중 이상서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이씨를 만난다. 남북한 이씨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울자 심지어 소운명은 소매로 이씨의 눈물을 닦아주기까지 하는 등 동성애적인 면모를 나타내기도 한다.<sup>35)</sup> 여기서는 〈소현성록〉 연작 전체에서 의

34) 〈유씨삼대록〉에서 남편 유현이 그의 둘째 부인 장설혜를 칼로 죽인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35) 고은임(2018), 앞의 논문, 110쪽. 고은임은 남자-남자 간의 동성애적 감정을 소운명

처증 증세를 소운명만 보이며, 더 나아가 우정 및 지기(知己) 관계가 아닌, 같은 성에 대한 도가 넘은 친절은 소운명만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판사이자 편집증 환자인 슈레버의 전기를 통해 슈레버가 어떻게 동성애적인 소망을 가졌는가를 분석했다. 슈레버는 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거세를 하고 여성이 되어 신의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sup>36)</sup> 프로이트는 슈레버를 통해 망상장애를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는데 “억압된 무의식적인 동성애적 경향이 부정, 반동형성, 그리고 투사에 의한 방어 과정을 거쳐 편집상태로 발전한다.”라고 보았다.<sup>37)</sup> 하지만 현재는 망상장애 환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기도 혹은 없기도 하며, 동성애자가 망상장애를 일으키기도 혹은 아니기도 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프로이트가 언급한 슈레버 케이스를 참조하겠다.

프로이트는 판사 슈레버가 망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찾았다. 슈레버의 아버지는 당시 명성이 자자한 의사이자 교육자로 자식들을 엄격하게 교육시켰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슈레버에게 자세 교정을 위해 등 띠, 강박대, 취침용 벨트, 머리띠, 턱 띠 등의 교정 도구들을 몸에 착용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슈레버는 자물쇠 소리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두통에 시달렸다고 한다.<sup>38)</sup>

이러한 슈레버의 아버지는 〈소현성록〉 연작의 소현성과 흡사하다. 소현성은 세상이 칭송하는 군자이자 자식의 교육에도 엄한 아버지였다.<sup>39)</sup> 소현성이 슈레버의 아버지처럼 어린 자식들의 몸에 교정 도구를 장착하게끔 하지는 않았지만 소현성은 아들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며 그의 자녀들은 소

과 남북한 이씨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6) 김서영, 『프로이트의 환자들』, 프로네시스, 2010, 380쪽.

37) 민성길 외(2006), 앞의 책, 301쪽.

38) 김서영(2010), 앞의 책, 382~384쪽.

39) 정선희(2005), 앞의 논문, 44쪽.

현성의 권위에 늘 굴복했다.<sup>40)</sup> 활달한 소운성조차도 아버지 소현성의 엄정함 앞에서는 기운을 펴지 못했고,<sup>41)</sup> 침묵하며 언짢아하는 기색을 보면 전전긍긍했다.<sup>42)</sup> 또한 소현성은 아들 소운명이 이씨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을 두고 심한 매를 내린다. 소운명은 100대의 매를 맞는데 고모인 소월영이 더 이상의 매질을 못하도록 개입할 정도였다.<sup>43)</sup> 작품에서는 아버지 소현성의 지나친 훈육이 그의 군사적인 자질과 뒤섞여 표현되기에, 그의 교육 방식은 훌륭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프로이트식으로 보면 소현성은 소운명에게 항상 엄부(嚴父)였기에,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아들 소운명이 동성애 및 망상장애 현상을 나타낸 것은 당연하다.<sup>44)</sup>

그런데 의처증의 원인 중 하나가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었다고 할 때, 왜 유독 아들들 중 소운명만 그렇게 묘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다른 아들들은 동일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아도 소운명과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를 ①혼인 당시 성적 욕구 충족의 차이와 ②타고난 기질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①소부의 다른 아들들은 혼인 시 성적 욕구를 소현성의 자장 아래에 있는 소부 내에서 해결한다. 이들은 다 재색이 뛰어난 부인들을 맞이하므로 소운명과는 상황 자체가 다른 것이다. 물론 소운성의 경우 혼인 전부터 반한 첫째 부인인 형씨를 두고 명현공주와 결합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웠지만 이는 늑혼(勒婚)에 대한 반발심이었지 명현공주의 외모로 인한 결핍이 아니었다. 명현공주는 아름다웠지만 소운성 본인이 원하는 여성이 아니었기에 끝까지 거부한다. 명현공주가 앵혈을 간직한 채로 일찍 죽는 것으로 보아 소운성도 결국 자신의 뜻대로 부인들을 대했다고 할 수 있다.

40) <소현성록> 연작 권지오, 119~121면.

41) <소현성록> 연작 권지오, 57면.

42) <소현성록> 연작 권지오, 69면.

43) <소현성록> 연작 권지십이, 33~34면.

44) 민성길 외(2006), 앞의 책, 302쪽. 현대 의학에서도 망상장애 환자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에 약간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②소운명은 앞서 살폈듯이 원래부터 병리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단지 작품에서는 그가 범인형 인물이되, 아녀자와 같은 성품을 지녔다고 말한다. 즉 형인 소운성처럼 호탕하며 무인적인 기질이 두드러진 인물은 아닌 것이다. 소현성에게는 10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작품 후반부에서는 소운성과 소운명을 제외한 아들들이 별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는 않기에 다른 아들들의 기질까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아들들 중 소운성과 소운명에게 서사가 집중되는데 이때 소운명의 기질이 소운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소운명의 재주가 세상에 알려지자 이미 첫째 부인 임씨가 있음에도 재취하기를 바라는 혼처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버지 소현성이 허락하지 않기에 소운명은 늘 탄식한다.<sup>45)</sup> 물론 소운명은 소부 밖의 공간에서 아버지 소현성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sup>46)</sup> 그러나 “본디 섬약하야 으녀즈그 트드로빠”<sup>47)</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섬약하고 여성스러운 소운명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sup>48)</sup>

소현성의 아들들 중 영웅성이 두드러지는 소운성을 보면 그나마 아버지 소현성의 뜻을 거스르는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성격적으로 강한 소운성조차 아버지의 가치관을 흡수하며 가문의 중심 인물이 된다. 그렇지만 소운명은 기질적으로도 소운성처럼 영웅형이 아니며, 영웅형이 아닐지라도 임씨와 잘 화합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 되나 그렇지 못한 인물이다. 즉 ①②로 보아 소운명만 소부의 다른 남성들과 같지 않는 것이다.

45) <소현성록> 연작 권지십, 1면.

46) 소운명이 산서지방의 순안어사로 떠날 때 소현성은 그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여가 창기를 모으지 말라고 당부한다. 즉 소현성은 소운명에게 소부라는 물리적 공간을 떠나도 재취는 계속 안 되며 창기도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이다.

47) <소현성록> 연작 권지십이, 31면.

48) 강우규·김바로(2018), 앞의 논문, 117쪽. 강우규·김바로는 소운명이 문약하되 애육이 강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소부에서 돌출된 소운명의 의치증 증세가 본인이 혼인 후 병리적 인간으로 변화한 것이 더 큰 원인인지, 아니면 아버지 소현성의 아들에 대한 태도가 더 근본적인 원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씨의 단명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부에 잠시 들어온 여승이 이씨의 관상을 보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자 아버지 소현성은 북두성에게 청하여 이씨를 35세까지 더 살 수 있도록 만든다.<sup>49)</sup> 어찌 보면 슈레버의 아버지가 어린 슈레버의 육체를 지나치게 통제했다면 소운명의 아버지인 소현성은 더 나아가 아들의 생애 전반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슈레버의 아버지가 주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그가 슈레버의 무의식에서 신적인 존재로 격상될 수 있었다고 본다.<sup>50)</sup>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현성은 황제를 비롯한 나라 전체가 인정하는 인물이자 소운명이 넘볼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문인 기질 정도만 갖춘 아들 소운명은 그 기세에 항상 억압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아들 소운명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 문제이지 아버지 소현성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오히려 소현성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아이러니한 점은 병리적 인간으로 변화한 소운명이 계속해서 슈레버의 아버지와 비슷한 소현성의 그늘 아래에서 혼인 생활을 꾸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버지 소현성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꾸자고 서술할 수도 없다. 이는 〈소현성록〉 연작 전체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소운명이 의치증을 보인 이유로는 첫째, 병리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소운명 자체에도 원인이 있었으며, 둘째, 엄한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도 원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병리적 남성 인물의 모습이 아닌 단지 개별화된

49) “소승상 북두성의 청하야 삼십 오세를 사르시니라” 〈소현성록〉 연작 권지십이, 76면.

50) 김서영(2010), 앞의 책, 381~382쪽.

남성 인물인 소운명이 〈소현성록〉 연작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작품에서는 소운명 자체는 계속 소부에 남게 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가 소부 밖에서 나름 욕구를 해결했던 방식을 완전하게 포용하지 않는다.

이씨의 단명을 다시 한번 살피겠다. 서사에서는 전생의 논리로 이씨의 단명을 설명하지만, 거칠게 말해 소운명이 내부에 약한 균열을 내며 결합한 이씨를 두고, 가문 의식을 구현하는 서술자가 소부에서 계속 허용할 리가 없다. 그래서 병리적 현상을 가문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개별화된 남성 인물인 소운명은 혼인 후 소부에서 지내는 대부분의 시간이 슬프다.<sup>51)</sup> 소부의 질서에 동화·적응하는 여타 남성 인물들과는 그 결이 다른 것이다.

#### 4. 17~18세기 삼대륙계 소설의 의치증 양상과 남성 인물군

##### 1) 17~18세기 삼대륙계 소설의 의치증 양상

이 장에서는 17세기 소운명을 바탕으로 18세기 삼대륙계 소설에서 의치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피겠다. 먼저 삼대륙계 소설의 의치증 양상을 살피기 전, 국문장편소설이 아닌 17세기 소설에서 의치증 증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다. 남편이 선한 아내를 의심하도록 제3의 인물이 일을 꾸미는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첩 교씨가 정처 사씨를 축출하기 위해 사씨의 시비를 매수해 옥지환을 흠쳐낸 후, 마치 사씨가 간부에게 옥지환을 준 것처럼 거짓을 꾸민다. 남편 유연수는 이 사건으로 사씨를 축출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씨를 의심한다. 하지만 사씨가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 사

51) 강우규·김바로(2018), 앞의 논문, 116~117쪽. 강우규·김바로는 혼인 후 소운명의 감정 상태가 거의 슬픈인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점이 다른 남성 인물들과 차별된다고 하였다.

유는 첩 교씨가 낳은 아들을 사씨가 죽였다는 모해 때문이었다. 즉 <사씨남정기>에서는 남편 유연수에게 소운명과 같은 의처증 증세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처럼 국문장편소설류가 아닌 17세기 고전소설에서는 남주인공에게 의처증이 유발되는 그림자 같은 사건만 있지 실제 남주인공에게 의처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럼 17~18세기 삼대륙계 소설에서 의처증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겠다. 여기서는 18세기 초의 <유씨삼대륙>, 18세기의 <현몽쌍룡기>, 18~19세기 초반의 <조씨삼대륙>을 대상으로 남편들의 의처증 양상을 크게 (가), (나), 두 가지로 나누겠다.<sup>52)</sup>

(가) 간부가 존재한다고 믿음		(나) 아내가 외부에 있었음	
㉠편지로 포함하기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명-이씨 <현몽쌍룡기>의 조성-양씨 <조씨삼대륙>의 양인광-조월염	㉠아내가 길거리를 떠돌았음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명-이씨
㉡다른 인물을 통해 일 꾸미기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명-이씨 <현몽쌍룡기>의 조성-양씨 <조씨삼대륙>의 양인광-조월염 <조씨삼대륙>의 조유현-정씨	㉡아내에게 겁탈 당할 만한 사건이 생김	<유씨삼대륙>의 유세필-박씨

<표 1> 17~18세기 삼대륙계 소설의 의처증 양상

(가)는 간부가 있다고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로, 아내의 정절을 제3의 인물

52) 공혜란(2018), 앞의 논문, 70~72쪽, 87~90쪽. 공혜란은 <유씨삼대륙>의 유세필-박씨, <현몽쌍룡기>의 조성-양씨, <조씨삼대륙>의 조유현-정씨 부부 사이에서 의처증에 따른 냉담과 폭언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남성 인물을 폭력의 가해자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17~18세기 삼대륙계 소설의 의처증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17세기와 18세기 삼대륙계 소설에서 의처증을 나타내는 남성 인물들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다.

이 모해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편지로 여성 인물을 포함하기<sup>53)</sup>, ㉡시비 등 다른 인물을 통해 간부가 존재한다는 말을 시키거나 간부가 있는 듯한 상황을 꾸미기이다. <소현성록> 연작의 이씨는 제3의 인물인 소운명의 셋째 부인 정씨로 인해, <현몽쌍룡기>의 양씨는 제3의 인물인 오라비 양세로 인해, <조씨삼대륙>의 조월염은 제3의 인물인 양인광의 둘째 부인 광씨로 인해 ㉠과 ㉡의 상황에 처한다. 단, <조씨삼대륙>의 조유현-정씨 부부간에는 설강이라는 남성 인물이 의도적으로 조유현에게 자신이 혼인 전 정씨를 만났다는 발화를 하여 조유현이 정씨의 정절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이는 제3자가 다른 인물을 통해 남편에게 아내의 간부가 존재한다는 말을 일부러 전달하는 장면과 흡사하여 ㉡에 첨가하였다.

(나)는 아내가 외부에 있었던 경우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내가 길거리를 떠돌아다녔을 때와, ㉣밖에서 겁탈을 당할 만한 사건이 아내에게 생겼을 때이다. ㉢<소현성록> 연작의 이씨는 혼인 전 남복하며 다녔고, ㉣<유씨삼대륙>에서는 혼인 후 박씨가 광동 지역의 도적에게 잡힐 뻔하였다.

이렇듯 17세기 소운명의 의처증 양상은 (가), (나) 모두 해당되며, 18세기 삼대륙계에서는 (가) 혹은 (나)로 나타난다. 즉 17세기 <소현성록> 연작의 의처증 양상을 18세기 삼대륙계 소설에서도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 2) 의처증과 남성 인물군

앞서 언급했듯이 의처증은 다양한 병리적 현상의 하위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렇지만 17세기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혼인 후 병리적 인간으로 변화하며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소운명을 병리적 인간이 아니라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 두었다. 이 장에서는 ‘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과

53) 경일남, 「고전소설의 삽입서간 연구」, 『어문연구』 28, 어문연구학회, 1996, 131~150쪽.

‘의치증이 발현되는 장면’ 자체를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왜냐하면 17세기 소운명에게 의치증이 발현되기 전까지 그가 ‘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작품에서 일정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18세기 삼대록계 소설도 이와 비슷한지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18세기 삼대록계 소설에서 ‘의치증’을 만들어가는 서사의 구성 방식이 17세기의 〈소현성록〉 연작과 동일한지 확인하려고 한다.

즉 18세기 삼대록계 소설에서 의치증을 보이는 남성 인물들도 소운명처럼 성적 욕구가 가문 내에서 충족이 되지 못해 ‘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의치증이 소운명처럼 개별화된 남성 인물에게만 보이는지, 그렇지 않다면 영웅성을 가진 중심 남성 인물에게도 발견되는지 등을 살피겠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a)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제거된 채 의치증 증상만 보이는 개별화된 남성 인물, 둘째, (b)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제거된 채 의치증 증상만 보이는 중심 남성 인물이다.

첫째, (a) 18세기 〈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의 유세필의 경우 첫째 부인 박씨에게 의치증 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유세필 자신이 가졌던 성격적 결함 때문이었다.<sup>54)</sup> 유세필은 아내 박씨를 잘 통제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혼인 초부터 박씨와 화합하지 못했다.<sup>55)</sup> 유세필은 박씨가 친정 아버지를 따라 광동 지역에 갔다 유부로 돌아오자 그녀의 정절을 의심하며 괴롭힌다. 즉 유세필도 어느 정도 성격에 문제가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의 유세필에게는 병리적 인물로의 변화 과정 및 아버지의 엄정한 교육 방식 등이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명처럼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성

54) 임치균(2012), 앞의 논문, 114쪽. 임치균은 부부간 불화의 원인이 유세필의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55) 장시광(2009), 앞의 논문, 233쪽. 장시광은 유세필의 행동이 여성의 성을 지배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유지하려는 남성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격적인 문제가 있는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 의처증 증세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8~19세기 초 <조씨삼대록(曹氏三代錄)>의 양인광의 경우 첫째 부인인 조월염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데 이는 양인광 본인이 지녔던 폭력적이고 문제적인 성격에서 기인했다. 양인광의 둘째 부인 곽씨는 쟁쟁으로 인해 첫째 부인 조월염에게 간부가 있다는 모함을 꾸민다. 양인광은 조월염에게 간부가 있다고 판단하자 조용히 조월염을 독살하고자 한다. 양인광은 혼인 전부터 가문 간 세력 차이가 있어 혼사를 이룰 수 없었던 조부의 조월염과 억지로 혼인하기 위해 조월염의 처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일방적이다 못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혼인을 성취한 것이다.<sup>56)</sup> 그리고 양인광은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명과 달리 무인적인 기질이 강한 인물이다. 즉 양인광에게는 의처증 증세가 나타나기는 하나 의처증 이전 소운명과 같이 병리적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양인광은 혼인 전이나 혼인 후 모두 지능적으로 폭력을 계획하는<sup>57)</sup> 문제적인 인물이자 개별화된 남성 인물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a) <유씨삼대록>의 유세필과 <조씨삼대록>의 양인광은 의처증 증세 이전부터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소운명처럼 의처증 이전에 범인형 인물이 병리적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아울러 혼인 후 의처증 증세는 보이나 각각의 작품에서는 병리적 인물로 두지 않고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만 처리하고 있었다.

둘째, (b) 의처증 증세가 중심 남성 인물에게 나타나는 경우로, (a)와 같이 의처증 이전 병리적 인물로 변화되는 과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a)에 해당하는 남성 인물들이 가문에서 개별화된 남성 인물이라면, (b)에 해당하는 전편 <현몽쌍룡기>의 아버지 조성과 후편 <조씨삼대록>의 아들 조유현은 가문의 중심 남성들이다.<sup>58)</sup>

56) 공혜란(2018), 앞의 논문, 59쪽.

57) 혼인 전 무단 침입 계획, 혼인 후 독살 계획을 들 수 있다.

전편 〈현몽쌍룡기〉의 조성-양씨 간은 양씨의 오라비 양세가 양부의 재산이 다 양씨 부부에게 갈까 두려워하여 누이 양씨의 정절을 모해한다. 양세는 시녀 계월과 강후신을 사주해 누이인 양씨의 정절을 양씨의 남편인 조성이 의심하도록 만든다. 조성은 편지 등과 같은 증거 외에, 단약을 먹고 양씨로 변신한 시녀 계월이 양씨의 간부로 둔갑한 강후신과 도망기는 것을 보았다.<sup>59)</sup> 후편 〈조씨삼대록〉의 조유현-정씨 간에는 예전부터 정씨를 사모했던 설강이라는 남성 인물이 정씨와 계속 화합하고자 양심을 품고 그녀를 모해한다. 즉 가문의 중심 남성 인물이 의처증 증세를 보일 때는 남성 자체의 성격 이상이나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의처증의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가문 외부로부터 원인이 제공되었다. 또한 이들도 (a)와 마찬가지로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하나, 각각의 작품에서는 외부의 문제로 그 원인을 돌리며, 중심 남성 인물들을 병리적인 인물로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이 18세기 삼대록계 소설에서 의처증 증상을 보이는 남성 인물들이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명과 같이 의처증 이전에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지, 혹은 개별화된 남성 인물에게만 나타나는지를 (a), (b) 두 가지로 분석했다. (a) 〈유씨삼대록〉의 유세필은 성품에 문제가 있는 남성 인물이었으며, 〈조씨삼대록〉의 양인광은 지능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 인물이었다. 또한 이들은 의처증 증세는 보이지만 의처증이 발현되기 이전에 병리적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58) 공혜란(2018), 앞의 논문, 117쪽. 공혜란은 전편 〈현몽쌍룡기〉의 조성과 후편 〈조씨삼대록〉의 조유현이 가문에서 중심 인물이자 부자 관계로, 이들에게 의처증이 대물림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공혜란은 17세기 소운명의 의처증을 병리적 현상으로 살펴 보지 않았고, 또한 조성과 조유현을 의처증을 보이는 다른 18세기 삼대록계 소설의 남성 인물군과 더불어 섬세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59) 〈현몽쌍룡기〉에서는 아내 양씨로 변신한 시녀 계월이 양씨의 남편인 조성에게 간부의 존재를 발화하지는 않는다. 즉 부부 사이를 아내가 먼저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형국이 아닌 것이다. 조성도 도망기는 남녀를 따라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는다.

나타내지 않았다. 즉 의처증 증세 이전부터 인품에 문제가 있었으며 개별화된 남성 인물이었다. 한편 (b) 전편 〈현몽쌍룡기〉의 조성과 후편 〈조씨삼대륙〉의 조유현은 의처증이 보이기는 하나 의처증 이전에 병리적인 인물로 변하는 장면이 없었고 더군다나 가문에서 개별화된 인물형도 아니었다. 이들은 조부의 중심 인물로, 남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의처증이 발현되는 원인도 가문 외부로부터 주어졌다.

따라서 18세기 삼대륙계 소설에서는 17세기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명처럼 의처증이 발현되기 전 평범했던 인물이 ‘병리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서사에서 사라졌다고 하겠다.<sup>60)</sup> 즉 단순하게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는 ‘의처증’만 문면에 표현되었다. 또한 의처증이 현대 의학에서는 병리적 현상 중 하나이기는 하나 17~18세기 삼대륙계 소설에서는 공통적으로 의처증을 보이는 남성 인물들에게 병리적 인물이라는 성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서술자들이 가문 번성이라는 장르상의 특징을 염두에 두었다면, 병리적인 남성 인물을 가문 안에 존재하게 하여 가문의 어떤 문제를 부각하려고는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화된 남성 인물이 의처증 증세를 나타내는 것은 18세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으며, 개별화된 남성 인물을 넘어 중심 남성 인물에게서도 의처증 증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 5. 결론

〈소현성록〉 연작의 후반부는 소현성의 아들들 중에서도 소운성과 소운명에게 서사를 집중하였다. 작가가 가문을 이끌어 갈 소운성과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소운명을 비중있게 배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삼대륙계

60) 17세기 삼대륙과 비교하여 다른 지점인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의미 등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소설이 가문의 번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소부에서는 아버지 소현성, 아들 소운성과 같은 비범하고 영웅적인 남성 인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문의 중심축에 서지 못하는 남성 인물도 존재한다.

한 평범한 남성 인물이 가문에서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상황을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소운명을 통해 구현한 것은 아닐까 한다. 그런데 17세기 <소현성록> 연작은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뚜렷하게 나타내며 의치증 증세를 보이는 소운명을 병리적 인물이 아닌, 개별화된 남성 인물로만 설정하였다. 병리적인 인물이 가문에서 발견된다면 그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작품에서는 소운명에게 색탐하는 남성, 소현성의 아들들 중 자손을 제일 많이 둔 남성이라는 성격을 부여하며, 그가 단지 개별화된 남성 인물이라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17세기 <소현성록> 연작의 의치증 양상을 보면, (가) 남편이 편지 및 다른 인물을 통해 아내에게 간부가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상황과 (나) 아내가 외부에 존재했던 상황이 다 나타났다. 이후 18세기 삼대록계 소설에서는 <소현성록> 연작의 의치증 양상을 작품에 따라 일부 차용하고 있었다. 또한 18세기 삼대록계 소설인 <유씨삼대록>의 유세필, <현몽쌍룡기>의 조성, <조씨삼대록>의 양인광, 조유현을 통해 남성 의치증이 17세기 소운명처럼 개별화된 남성 인물뿐만 아니라 중심 남성 인물에게서도 발견됨을 확인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병리적 현상 중 하나인 의치증을 보이나 작품에서는 모두 병리적 인물이 아닌 것으로 그려졌다. 이때 개별화된 남성 인물들이 의치증을 보일 경우 그 원인이 본인의 성격적인 결함에서 비롯되었고, 중심 남성 인물들이 의치증을 보일 경우 가문 밖의 문제로 일어났다. 이를 통해 17세기 소운명의 의치증이 후대 18세기 삼대록계 소설에서 남성 인물군을 넓혀 구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의치증을 보이는 18세기 삼대륙계 남성 인물들에게서는 소운 명처럼 혼인 후 가문 내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17세기 <소현성록> 연작과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17세기 <소현성록> 연작의 의치증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변용되었으되, 의치증 이전에 병리적인 남성 인물로 변화하는 지점은 18세기 삼대륙계 소설에서 나타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소현성록(蘇賢聖錄)〉 연작, 이대본 15권 15책.  
〈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 국립중앙도서관본 20권 20책.  
〈조씨삼대록(曹氏三代錄)〉, 서강대본 40권 40책.  
〈현몽쌍룡기(現夢雙龍記)〉, 장서각본 18권 18책.
- 강우규·김바로, 「〈소현성록〉 연작에 나타난 감정의 출현 빈도와 의미-컴퓨터를 활용한 통계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온지논총』 56, 온지학회, 2018, 101~128쪽.
- 경일남, 「고전소설의 삽입서간 연구」, 『어문연구』 28, 어문연구학회, 1996, 131~150쪽.
-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문화사학회, 2018, 91~121쪽.
- \_\_\_\_\_,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권력자의 복수(復讎)-〈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8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37~71쪽.
- 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대 박사논문, 2018, 1~176쪽.
- 김서영, 『프로이트의 환자들』, 프로네시스, 2010, 1~533쪽.
-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과 갈등의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3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99~118쪽.
- 민성길 외,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2006, 1~927쪽.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3, 1~258쪽.
- 임치균,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방식 고찰」, 『문학치료연구』 22,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7~130쪽.
-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23~269쪽.
- 전현태, 『오셀로와 데스테모나, 그들은 정말 사랑했을까』, 좋은책 만들기, 2010, 1~400쪽.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쪽.

\_\_\_\_\_,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53~487쪽.

홍혜원, 「일제 말기 한설야 소설과 신경증」, 『현대문학이론연구』 5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319~338쪽.

Sigmund Freud,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 우리글 발 전소 옮김, 『정신분석 입문』, 오늘의 책, 2016, 1~621쪽.

ABSTRACT

Male Characters' Morbid Jealousy in Three-Generation Series Novels

– Focused on “Sounmyeong” in *Sohyeonseong-rok* Series

Gong, Hye-ran

In three-generation series novels, many characters are embodied due to their massive volume. Of them, the husband who doubts his wife's fidelity, even though she is not unfaithful, is often embodied such novels from 17th and the 18th century. This study first defines a long line of acts by Sounmyeong *Sohyeonseong-rok* series in the 17th century, which is an early three-generation series novels on “morbid jealousy”, a modern pathological phenomenon to examine its symptoms and investigate causes and the impact of such a type of male characters on these novels later in the 18th century. This study received help from concepts in Modern Psychiatry and Sigmund Freud's studies. In addition, of the three-generation series novels in the 18th century, this study was concerned with *Yussisamdaerok* in the early-18th century, *Hyeonmong-ssangryonggi* in the 18th century and *Jossisamdaerok* in the 18th to the early-19th century. this study classifies and investigate the male characters who show symptom of morbid jealousy aforementioned novels. this study also examines various aspects of male characters in Korean full-length novels through this discussion.

Key Words

*Sohyeonseong-rok* series, Sounmyeong, Morbid jealousy, Three-generation series novel, Pathological phenomenon

논문투고일 : 2021.04.15  
심사완료일 : 2021.05.02  
게재확정일 : 2021.05.10